

공무국외 연수 보고서

2013. 4. .



순천시의회



목 차

□ 연수개요	1
□ 세부연수내용	
1. 케른트너 보행자 전용거리	4
2. 쾰른 궁전과 정원	6
3. 빈 시청과 공원	9
4. 훈데르트바서하우스	11
5. 그라츠 도시디자인	13
6. 무레크 에너지자립마을	16
7. 이탈리아 협동조합	25
8. SEKO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35
9. 피렌체 전통시장(중앙 가축시장)	42
10. 오르비에토 마을만들기	44
11. IperCoop Euroma2	46
□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제언	48
□ 언론인간담회 및 타시군 벤치마킹 사례	
1. 언론인간담회 개최	53
2. 정읍 (주)립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장 견학	54
□ 참고자료	57

1. 연수배경

-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의 발효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방안이 새로운 사회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우리시도 최근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

2. 연수목적

- 유럽 선진국 가축분뇨에너지사업 우수 사업장 및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선진지 성공사례 벤치마킹
 - ※ 독일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은 처리방식이 유사한 정읍의 (주)립코 현장방문으로 대체
- 미래를 대비한 도시 디자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3. 연수기간

- 2013. 3. 23(토) ~ 3. 30(토) <6박 8일>

4. 연수국가

- 오스트리아(비엔나, 그라츠, 무레크)
- 이탈리아(볼로냐, 파도바, 피렌체, 오르비에또, 로마)

5. 연수인원

○ 8명(의원 6, 직원 2)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문규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단장
허유인	"	간사	부단장
유종완	"	위원	
최종연	"	위원	
신화철	"	위원	
남정옥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강선	순천시의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전동준	"	주무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시청(문규준 위원장의 우측 시장, 좌측 도시계획담당자)

6.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교통편	주 요 일 정
제1일	3.23 (토)	▪ 인천/ 오스트리아	13:45~17:20	▪ KE933	▪ 인천 ⇒ 오스트리아(비엔나)
제2일	3.24 (일)	▪ 비엔나 ▪ 그라츠	09:00~18:00	전용차량	▪ 비엔나 최대보행자거리 케른트너거리견학 ▪ 그라츠 CITY OF DESIGN 견학
제3일	3.25 (월)	▪ 무레크	09:00~18:00	전용차량	▪ 무레크 바이오에너지마을 방문
제4일	3.26 (화)	▪ 볼로냐	09:00~18:00	전용차량	▪ 볼로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방문 (코프이탈리아 협동조합)
제5일	3.27 (수)	▪ 파도바	09:00~18:00	전용차량	▪ SEKO 시설현장 및 생산공장 방문
제6일	3.28 (목)	▪ 피렌체 ▪ 오르비에토	09:00~18:00	전용차량	▪ 피렌체 중앙전통시장 견학 ▪ 오르비에토 마을만들기 견학
제7일	3.29 (금)	▪ 로마	09:00~18:00	전용차량	▪ IPERCOOP IN EUROMA2 생협방문
제8일	3.30 (토)	▪ 로마/인천	22:20~17:00	KE927	▪ 로마 ⇒ 인천

1. 케른트너 보행자 전용거리

가. 기본현황

- 성 슈테판 성당 광장을 중심으로 보행자 전용 거리인 그라벤과 콜마르크트에는 차량운행이 전혀 없다. 대신 관광용 마차가 운행한다. 오전 10시까지는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이 운행이 되지만 이후에는 전면 차량이 통제되어 보행자 전용거리가 된다.
- 구간 : 국립 오페라 극장 ~ 슈테판 성당(약 600m)
- 오는 길 : U1·3호선 Stephansplatz역, U1·4호선 Karlsplatz역에서 하차

나. 역사

- 1974년 오스트리아 Garinthia(Karnten)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거리로 꼽힌다. 도로 양쪽에는 선물용품점과 액세서리점, 부티크, 레스토랑, 카페가 늘어서 있다.

다. 시사점

- 우리시 중앙시장 골목, 옷시장 국밥거리, 연향동패션거리, 문화의거리에도 오전에만 필요 물품 차량배달이 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시켜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안전한 보행 거리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방문객이 늘고 문화행사도 껴들이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대형쇼핑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인의 입지를 넓혀 줄 것으로 예상됨.
- 도로점용료 제도 활성화 : 케른트너 거리는 비싼 도로점용세를 시에서 부과하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상인은 카페테리아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음. 우리시도 적합한 곳을 보행자 전용거리로 조성하면서 도로점용료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잡상인이 없는 깨끗하고 정비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행자 전용거리 주변 주차장 확보 : 보행자 전용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보행자 전용거리 주변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함. (예 : 공공·공용부지 또는 폐가 등을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



<케른트너 보행자 전용거리 카페테리아 전경>

- 건물 1층 상가앞 거리는 도로점용세를 시에 부과하여 사용하는데 주로 카페테리아로 이용하고 있음.
-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율이 높은 편이며, 도로점용세는 비싼 세금이라서 시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함.
- 우리시도 보행자 전용거리를 조성하면서 도로점용료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세외수입도 늘리고, 잡상인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쾰브룬 궁전과 정원

가. 기본현황

- 위치 : 오스트리아(Austria), 빈(Vienna)
- 좌표 : N48 11 12, E16 18 48
- 세계유산 등재연도 : 1996년
- 유산면적 : 186ha
- 완충지역 : 261ha
- 활용 : 건물 외부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여가 및 체육활동 가능
- 설계 : 요한 베른하르트 피셔 폰 에를라흐(Johann Bernhard Fischer von Erlach)와 니콜라우스 파카시(Nicolaus Pacassi)

나. 역사

- 쾰브룬은 18세기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였다. 16세기 이후부터 쾰브룬은 합스부르크가의 사냥용 오두막과 여름 별궁으로 쓰였다. 1683년 터키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던 사냥용 오두막과 후기 합스부르크가의 여름 별궁은 재건된 것이다.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제국의 번영과 우월함을 상징한다. 합스부르크 제국이 절정을 이룬 18세기 초기에 터키 식으로 새로 개발된 쾰브룬은 바로크 양식의 극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다. 특징

- 종합예술 : 뛰어난 장식 예술품이 가득하다. 세계 최초의 동물원(1752)이 있는 바로크 양식의 쾰브룬 궁전과 정원(Palace and Gardens of Schönbrunn)은 **종합예술(Gesamtkunstwerk) 개념**(건축 독창성의 완벽한 보존, 궁전의 디자인과 가구, 건물과 정원의 공간적·시각적 관계)을 실현한 놀랍고 완벽한 사례이다. 바로크 양식의 넓은 정원에는 글로리에테(Gloriette, 작은 정자), 로마 유적 등 수많은 건물과 조각상이 있다.
- 부속건물 : 궁전 동쪽에 있는 오랑제리(Orangery, 열대식물이 겨울을 나도록 설치한 온실)은 186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궁전의 그레이트 팜 하우스(Great Palm House)는 1880년 영국에서 개발된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철골로 세운 인상적인 건물이며, 길이가 114m이고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배치 : 바로크 정원 배치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나무와 관목은 18세기 전통 기술로 손질되어 있다.

라. 관리 및 운영

- 오스트리아 공화국 소유이다. 이곳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쾨브룬 궁전문화경영협회(유한책임회사, Schloss Schönbrunn Kultur-und Betriebsgesellschaft GmbH(Ltd))가 관리한다.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Bundesgärten)가 책임진다. 이곳은 연방과 지방 차원에서 보호한다. 전문적 관리는 예산, 직원, 투자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연방의 유적과 빈 시 보호사무소의 요건에 따라 연방 전문가들은 관리 계획을 짜고 실행한다. 쾨브룬 아카데미는 재산관리와 상세한 기술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예산은 연방정부가 보조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빈 시는 완충 지역의 보호 자금을 보조한다.
- 보호 : 인접 지역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완충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빈 시는 인접 지역을 도시 규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마. 세계문화유산 등재

- 등재기준 : 기준(i) 바로크 양식이 잘 보존되고, 여러 예술 양식이 뛰어나게 결합된 종합예술의 탁월한 예이다. 기준(iv) 수백 년에 걸쳐 우수하게 보존 재건된 증거로 탁월한 가치를 지니며, 이 재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취향, 관심, 야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바. 시사점

- **보존과 이용의 균형** : 세계문화유산은 전문 관리기구에서 관리하지만 건물이외 야외정원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이곳을 찾아 운동 등 여가활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보존할 문화유산은 철저히 보호·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쾨브룬궁전 주변을 바자회, 야시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남도농특산물관』을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특색있게 운영하고 기타 야외정원 등은 시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웬부른 궁전 옆 야시장



웬부른 궁전 미로정원 입구



궁전내 정원 가로수



궁전내 정원 가로수

특색있게 가지런히 정비된 정원수의 모습
정원박람회장을 유지·관리할 때 활용하면 좋겠음.

3. 오스트리아 빈 시청과 공원

가. 기본현황

- 1883년 건립, 신고딕식 건물로 시민을 위해 시청 광장을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 여름에는 필름페스티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마켓(Christmas Market) 등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린다.
- 주변 : 오른쪽에는 빈대학교가 있고 건너편에는 빈 최초의 극장이었던 왕궁극장(Burgtheater)이 있으며, 인근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나. 공간활용

- 7, 8월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유명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그리고 오페라가 무료로 상영. 11.16~12.24일까지 열리는 크리스마스마켓은 시청 앞에 늘어선 140여 개의 가판대에 설탕에 절인 과일, 군밤, 솜사탕 등 먹을거리와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진열되며, 전세계 합창단이 참가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콘서트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다.

다. 시사점

- 빈 시청 지하에는 3,000여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위에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로 활용된다. 또한 청사앞 광장은 계절별로 콘서트,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우리시도 시청뿐만아니라 공공·공용 시설물에 지하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상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빈 시청 옆 공원은 잔디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벤치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잔디밭 경계선을 만들어 잔디를 보호하면서 시민에게 쉴 공간을 제공함. 우리시도 공원이나 아파트 담장 조성 또는 담당허물기 사업시 펜스 대신 의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빈 시청 광장 앞 정원박람회 홍보



오스트리아 국회 앞 정원박람회 홍보



가로등에 붙은 특이한 디자인 쓰레기통



빈 시청 옆 공원



벤치를 이용한 공원내 잔디보호 사례

4.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 Haus)

가. 기본현황

- 구분 : 집합주택
-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시내 헤츠가세역(驛) 근처
- 준공 : 1985년 10월
- 건립자 : 빈 시당국
- 설계자/건축가 :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¹⁾(1928~2000)
- 규모 : 대지면적 1,543㎡, 주택 52호, 상점 5호, 층수 3~9층, 벽돌구조, 각 주택의 규모는 30~150㎡
- 공공공간 : 어린이놀이터 2곳, 카페, 계단식으로 디자인된 지붕정원(tree tenants), 대화 장소나 개인적인 파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윈터가든(winter garden) 등

나. 특징

- 서민임대 아파트라도 해서 삭막하고 특성없는 공장식 주택을 지양하고,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건축물을 목표로 하여 과거 왕이 살던 위엄 있는 왕궁과 같은 대중의 집을 실현함, 강렬한 색채와 서로 다른 모양의 창틀, 둥근 탑,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도 등이 조화를 이룸.

다. 시사점

- 기능과 아름다움의 접목 : 서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며 매매가는 28억으로 실구매자는 없다고 한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화려하게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인간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집의 공간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건물의 독특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출입구 공동 구역에는 카페, 상가 등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아파트 거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주의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와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단순한 디자인의 주거복지 수준을 넘어 거주공간도 예술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실용성과 심미성도 함께 잘 적용시킨 사례임.

1) 1973년부터 건축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스피틀라우 지역에 있는 둥근 돔 형태의 쓰레기소각장을 디자인하고, 화려한 개인화랑인 쿤스트하우스 빈(Kunst Haus Wien) 등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 우리시의 경우 서민을 위한 안정된 주택 공급이 부족해 기형적으로 원룸, 투룸 형태의 주거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시영 아파트 건립이 필요함. 아파트 건립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리고 **시영 임대아파트**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저소득층 등을 우선대상으로 입주 기준을 세워 운영하면 우수 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도심형 관광자원**으로 활용 : 우리시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 일정 부분 도시 미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건축설계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임. 건축설계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시 미관에 걸맞는 우수 설계자를 공모하여 일정 택지구간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을 신설할 경우 기능을 살리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접목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심형 관광자원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붕정원(옥상정원)을 조성하면 입주자에게 쉼터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우리시도 옥상정원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아파트 전경 포스터



아파트상가 앞



아파트 내부 상가(카페 등) 전경



아파트 내부 기념품 판매공간

5. 그라츠 도시디자인(쿤스트하우스, 문화의 다리)

가. 도시 기본현황

- 위치 :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 주
- 인구 : 265,318명 (2012년)
- 인구밀도 : 2,100/km²
- 면적 : 127.56 km²
- 해발 : 353 m
- 특징 : 그라츠는 빈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주도이며 오랜 전통의 교육 도시로 여섯 개의 대학과 44,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1999년 그라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다.



※ **도시계획의 핵심** : 그라츠 중심부를 흐르는 무어 강 동쪽과 서쪽으로 분화된 시민들의 정서와 공간을 강을 매개로한 **문화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도시 개조와 계층간 **사회통합**을 함께 이뤄낸 도시 디자인 사례로 “쿤스트하우스”와 “문화의다리”가 대표적임.

나. 쿤스트하우스

- 준공 : 2004년 9월
- 사업비 : 500억원(4층)
- 특징 : 고풍스러운 건물들 위에 불시착한 우수선같은 독특한 외관의 미술관으로 밤이면 청색 아크릴 외장재 안쪽에 설치된 700개의 형광등이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패턴으로 점멸해 살아 움직이는 생물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킴.
- 운영 : 소장품 없이 다양한 현대미술의 실험장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 쿤스트하우스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아방가르드 건축물이다.

- 역사 : 그라츠 시 한가운데로 무어 강이 흐르는데 동쪽은 중상류층 거주지역인 반면, 서쪽은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동자 거주지역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 개조와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어 강을 적극 이용하고 강 양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강 서쪽 지역을 예술로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한 ‘아트 존’으로 설정. 그 중심에 쿤스트하우스가 있다.
- 설계 : 영국의 건축가 피터 쿡과 콜린 푸르니에

다. 문화의 다리

- 외형 : 무어강의 인공섬과 양쪽 강가를 연결하는 46.6m의 보행교
- 설계 : 그라츠 출신 미술전문 기획자인 로버트 푼켄호퍼와 뉴욕 출신 건축가 비토 아콘치
- 특징 : ‘문화의 다리’ 중간에는 시민이 강에서 만나 즐길 수 있는 ‘인공섬’이 조성, 강수량에 따라 배처럼 뜨고 가라앉도록 설계되었고, 인공섬에는 카페와 70평 남짓한 야외무대 공간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재즈콘서트와 마임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된다.

라. 시사점

- 시민들의 80%가 당초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쿤스트하우스를 ‘친근한 외계인’이란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주변의 도시공간까지 문화적으로 바꾸었다. 주변에 재즈바, 영화관, 아틀리에, 콘서트홀, DVD감상실, 쇼핑센터 등 작은 공연장과 카페가 속속 들어섰다. 범죄율이 높아 밤이면 아예 강을 건너오지 않던 동쪽 구도심 지역 사람들도 서쪽을 찾기 시작함.
- 우리시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건강센터, 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의거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이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경우에도 오래된 건물을 싹 없애버리지 말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특성을 살려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의다리”를 통해 강 양편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문화공간으로 함께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 것처럼, 우리시도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들간 왕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물(예 : 다리, 보행육교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시민들이 화합하는 구심점 역할이 필요함.
- 또한 행정기관에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일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도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순천시와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문화의다리



쿤스트하우스



오래된 건물의 역사를 기록한 명패



오래된 건물을 없애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



그라츠 시내 독특한 디자인 건물



그라츠 시청앞 거리

6. 무레크 세계최초 에너지자립 마을

가. 마을 기본현황

위치	오스트리아 동남쪽 슬로베니아 국경도시
인구	약 1,700명
바이오매스	유채, 폐식용유(90%), 에너지작물(목초, 옥수수), 목재, 축산분뇨
주요시설	바이오디젤생산시설, 혐기성소화시설, 우드칩보일러(8,500MWh/년), 태양광발전(1MWh)
에너지 및 부산물	○바이오디젤 생산 : 1,500만 ℓ /년 ○전기생산 : 8,400MWh ○열생산 : 9,600MWh ※전체생산시설에서 연간 205억원 수입
사업비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173억원 / SEEG사 : 정부지원(30%), 농부조합(70%) ○지역난방회사 126억원 / Nahwaermem사 : 정부지원(48%), 농부조합·바이오디젤회사(52%) ○바이오가스생산시설 94억원 / Oekostrom사 : 정부지원(25%), 농부조합·바이오디젤회사(75%) ○태양광발전회사 46억원 / Photovoltaik-Bürgeranlage사 : 지역주민출자 100%
시설운영방식	전문기관 위탁운영

※ 무레크 바이오에너지 회사 현황

구분	SEEG (바이오디젤생산회사)	나베르메 (지역난방회사)	외코스트롬 (바이오가스회사)
설립연도	1989년	1998년	2005년
운영	570명 주민 투자	SEEG+2명 농부 투자	나베르메+7명의 농부 투자
원료	유채(10%), 폐식용유(90%)	나무(wood chip)	축산분뇨, 농업부산물
연생산량	1,000만리터	8,500MWh	8,400MWh
용도	무레크 지역 농기계 연료, 그라츠 시내버스 연료, 타 지역 판매	무레크 지역 난방 90% 공급	무레크 지역 전기 100% 공급, 오스트리아 전력공사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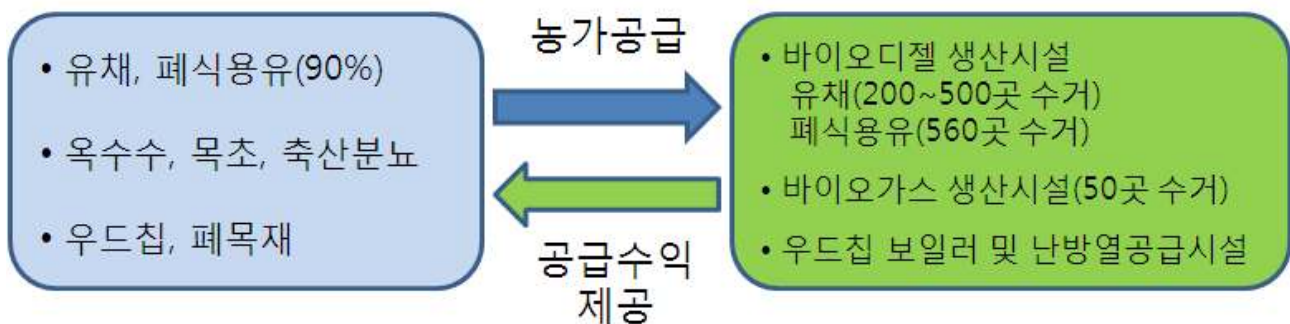


무레크 마을의 슬로건
(기후보호, 삶의 질, 고용, 안전)

나. 마을연혁

년도	내 용
1980년대	곡물가격 폭락과 오일쇼크로 식량 및 에너지 고립 위험 증가
1985년 12월	식량 및 에너지자립 대책으로 에너지작물인 유채농사 및 바이오디젤 생산·활용
1989년	지역주민 570명이 공동투자로 바이오디젤 생산회사 설립
1994년	폐식용유와 유채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디젤만 판매하는 전용 주유소가 세계 최초로 세워짐
1998년	목재를 이용한 지역난방과 옥수수, 축산분뇨 등을 이용한 바이오생산시설 운영
2001년	‘유로솔라’로부터 ‘세계 에너지 대상’ 수상
2006년	‘유럽 태양에너지 대상’ 수상

다. 바이오에너지 이용현황



라. 에너지 및 부산물 이용현황



마. 에너지시설의 특징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축산분뇨 등), 우드칩 보일러 및 난방열 공급시설, 태양광 등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바이오에너지시설이 집약적으로 설치** →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너지 효과가 상당함)

바. 에너지마을의 시작

1985. 12. 30. 칼 토터를 포함한 농부 3명에서 시작된 이유는 연일 유가가 상승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농사를 고민하게 됨, 처음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시의회를 방문하고 기술자문은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함

사. 에너지마을 성장과정

- 1989년 무레크에서 유채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보조금과 마을 농부들이 모은 자금으로 바이오디젤 회사 설립, 그라츠대학과 바이오디젤 생산 컨설팅업체인 바이오디젤인터내셔널의 도움이 큰 영향을 줌
- 1985년부터 마르틴 미텔바흐 그라츠대 교수는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연구 시작
- 1994년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성공, 유채 생산시 수익성이 낮았으나 폐식용유를 이용하면서 수익성 개선(유채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어 폐식용유 쪽으로 방향 전환, 그라츠시는 100%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 버스 152대를 운영중)
- 1998년 잡목 등으로 지역난방(열병합발전)을 하는 나베르메에 투자, 나무로 물을 데우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 가정, 학교 등으로 공급 (지역난방 85% 책임짐)
- 2005년 바이오가스(축산분뇨 등)로 전기생산하는 외코스트롬 설립, 에너지기업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전에 만든 회사가 적극 투자하면서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짐
- 2000년 213만 유로(약 39억원)이던 매출이 2008년 1000만 유로(약 185억원) 돌파
- 회사 외형은 커졌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운영 방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매년 6월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등 회사와 관련된 중요 결정이 내려짐
- 현재 친환경 무제한 에너지인 태양열에너지를 최종 목표로 설정함

아. 파급효과

1)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1,700명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자체 고용되어 폐식용유 수거, 잡목공급, 축분처리 에너지산업과 연관해서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을 실현

2)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조합원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3) 관광객 유치

에너지 자립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연간 전세계에서 5,000여명이 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에 따른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에너지 자립도 170% 달성

-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총량 : 90,000 MWh
(난방, 전기, 운송연료 모두 포함)
- 마을에서 생산량 : 152,000 MWh
(잉여 전력은 타 지역에 판매해 수익 올림)
- 무레크 주민 1인 에너지 구입비용 : 1500유로(약 277만원)

5) 화석에너지 대체 및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보호

- 난방 석유 1500만 리터 대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55,000tCO₂
(이산화탄소톤 1tCO₂는 전력 2500kWh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임)

자. 성공비결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주민들은 10년째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온 폐식용유는 “에코 서비스”라는 기업이 수거해 바이오디젤 회사 SEEG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에코 서비스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인근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폐식용유를 수거해 SEEG에 공급함
-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농업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에너지 농사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 에너지와 관련 주민들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제시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 친환경 연료 보급에 적극적
- 모든 경유 차량에 연료 5%를 바이오디젤로 채우도록 의무화,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와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경유의 절반 수준임
- 2009. 7월부터 일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탄소부담금 제도 시행
(신규차량 구입시 km당 배출 이산화탄소 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초과 g당 25유로(약 46,000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반대로 하이브리드, 액화가스, 메탄가스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500유로(약 92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됨)

○ 유기적인 산·학협동

- 바이오디젤 개발시 그라츠대학과 바이오디젤 생산 컨설팅업체인 바이오디젤인터내셔널의 도움이 큰 영향을 줌
- 1985년부터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연구를 시작해 1994년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성공함

차. 시사점

1)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의 이해와 필요성 공감

-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방안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은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올리고 또한 부산물로 비료 생산,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재배에도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됨.

2) 지역주민과 갈등해소 방안(정확한 정보제공, 공청회 개최)

- 무례크 마을의 경우 민가 250m인근에 사업장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악취발생을 우려해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물로 생각해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장 건립을 반대하는 우리시 주암면의 경우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건립된 사업장을 주민들이 견학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선행 과정**으로 공청회를 통해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창출 등 이 사업의 유용성을 농가에서 공감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고 오히려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기보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할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과정을 밟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 결과적으로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교훈을 주는 사례임.

3) 지역경제 활성화

- 낮은 가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다양한 에너지회사와 수거작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기대.

4) 환경보호 및 탄소배출감소

- 화석연료 사용감소, 폐식용유 활용, 청정 태양광 에너지 생산으로 환경보호 및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 지역적 특성에 동감하는 주민 참여가 높아 사업추진 원활.
-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
-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

6) 태양광발전사업 확대 필요

- 무례크 에너지자립 마을의 최종 귀착점은 무한한 에너지공급원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우리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기



바이오디젤 주유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견학



전기생산시설 견학



무레크 에너지마을 운영자의 브리핑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견학



정원박람회 홍보 및 기념품 전달



에너지회사 정문

7. 이탈리아 협동조합

가.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역사

- 1854년 : 이탈리아 최초 협동조합이 북부 토리노 직동에 의해 시작
- 19세기 말~20세기 초 :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이탈리아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짐
- 파시즘 시기(1926~1945) : 협동조합의 자치권이 박탈됨
- 1980년대 후반 :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게 됨.
- 1991년 : 사회적협동조합법²⁾ 제정,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부름.
- 2005년 5월말 : 사회적 기업을 조직 형태로 인정하는 최초 법률 통과

나.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국조직 현황

- 약 77,000개의 협동조합(2003년 통계)
- 약 70만명 직원(전 노동력의 약 2%, 민간 고용노동의 약 4% 차지)
-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약 50%가 4개 중앙회에 소속되어 있음
- 과거 중앙회 중심으로 정당이 있고 정치적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현재 거의 불식되었고, 현재 레가코프와 CCI는 對정부 교섭 등 공동보조를 강화함.

2)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381호

- (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혜택 또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외부 비조합원도 사업과 수익의 대상이 되는 개방성과 사회성을 갖는다)
- (나) 조합원은 노동자·이용자·자원봉사자·재정후원자·법인(지방정부를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전체 조합원 수의 50%를 넘지 못한다.(다원적인 조합원 구조를 갖되 노동자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조합원들의 비율을 제한하였다.)
- (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전체 이익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되고 1구좌의 배당률은 이탈리아 우체국 발행 채권 수익률인 2%를 넘을 수 없으며 청산할 때 자산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조합원들의 배타적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 (라) 사회적협동조합은 활동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A유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불이익자들을 고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B유형 협동조합으로 구분하며, B유형에는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전체 고용이 3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마) 정부 및 공공부문은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자선조직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까지 감면한다. 또한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20%까지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조합들은 사회보장 부담세를 면제받는다.)

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

1) 정치적 성향

협동조합 발전과정에서 정당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연합회별로 크게 3가지 정치적 성향을 띤다(가톨릭, 사회주의, 공화당(우파))

2) 안정적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 속에서 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어떤 정권이든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자세를 가짐.

3) 규모화 및 전문화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통해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 증대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여 관리가 어렵고 초창기 정신을 잃을 수 있지만, 리더들이 민주주의를 적용시키는 형태를 끊임없이 찾고, 교육을 통해 원칙을 고수하고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보완함으로써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4) 협동조합의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지만 협동조합은 노동운동과 결합, 그리고 지역별·전국적·업종별 연합체제³⁾를 구성하여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컨소시엄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거나 사업에 입찰할 때 연합조직의 자격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구매 및 역할 분담으로 작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한다.

5) 인적자원 중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성장의 동력

3) 연합체제 : 일명 딸기밭 전략으로 불리우며 딸기밭은 딸기나무가 자라서가 아니라 토양아래 있는 싹이 확대되어 그들끼리 연결되어 점차 성장함.

라. 이탈리아 협동조합 4대 연합조직 현황

조직명	설립	성향	조합원수 (명)	회원조합수 (개)	사업금액 (유로)
레가코프 (Lega Coop)	1886년	좌익계	830만	15,000	479억
협동조합연합 (CCI)	1919년	가톨릭계	288만	19,000	569억
협동조합총연합 (AGCI)	1952년	사회민주당과 협화당, 자유당계의 연합회	27만	5,500	41억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 (UNCI)	1975년	가톨릭 노동자조직 남부·시칠리아·북동부를 기반, 생산·농업·건축 등의 분야 주체	47만	6,300	31억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 A 유형 :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수준을 통합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둠
- B 유형 : 장애우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농업이나 2차 산업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구축
- 2004년말 기준 A유형은 59%, B유형은 33%, 두 유형이 섞여 있거나 협의체(컨소시엄) 형태가 8%를 차지
- 지리적 분포 : 북부가 가장 많고, 남부와 섬 지역, 중부 지역 순

마. 레가코프(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

1) 개념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 소속된 협동조합들의 대표기구로 그들을 대변하며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레가코프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종류

- 가) 소비자들이 결성해 좋은 품질과 값싼 물자를 공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
- 나) 상품 생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생산협동조합
- 다) 직접 경작을 하거나 구매·유통·물류 등 각종 농축산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 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입 또는 임대 목적의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건설협동조합
- 마) 여객 및 화물 운송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운송협동조합
- 바) 자신이 배 주인이거나 협동조합 소유의 배를 이용하는 어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 사)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협동조합으로 신용 분야가 해당되며 보험·문화·여행·스포츠·여가관리 등이 포함된다.
- 아) 1991년 11월 8일에 제정된 관련법 381호에 따라 공익기관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3) 레가코프의 특징

- 가) 협동조합의 중요한 가치이자 원동력은 “**사회적 책임성**” :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고 정당하게 운영해 배분과 나눔을 통해 무조건 일자리를 살림
- 나) **코프 펀드** : 법에 의해 단위 협동조합 수익의 3%가 전국적인 펀드로 자동으로 들어가며 협동조합이 문을 닫아도 남은 돈은 코프 펀드로 들어가며 이는 새로운 코프를 지원해 작은 코프의 성장을 돕는 방식
- 다) **협동정신** : 이익만 생각한다면 주식회사가 자본과 조직을 컨트롤하기가 더 쉽지만,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사회적·정치적인 면도 함께 목표로 추구함

4) 레가코프의 역사

- 1886년 설립
- 1920~1940년 파시즘 시절 활동 멈춤
- 1945. 8. 28 재결성
- 1990년대 초반 협동조합 간부와 정치인 사이의 뇌물수수 문제 발생 : 사회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연합체의 최고 임원을 선임해 왔음
-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되면서 정당 추천이 아닌 협동조합 내부에서 선출하여 정치로부터 독립
- 1992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출자조합원제도(담보로서 이자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 협동조합개발기금(코프 펀드) 창설
- 1994년 협동조합개발기금 개시 242명 고용 실현
- 1995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세 조치 실행, 레가코프 협동조합 개발기금으로 24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1064명 고용 확보
- 1996년 창립 110주년

5) 레가코프의 전국 조직

- CoopFond : 각 조직의 연수익 3%를 협동조합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관리, 1993년 지주회사로 설립, 주식은 100% 레가코프가 보유
- InfoCoop : 레가의 교육훈련 기관, 1992년 설립, 회원조직이 위탁하는 연구 및 컨설팅 업무, 다른 경제부문에서 위탁 프로젝트도 수행
- C.C.F.S : 협동조합의 금융 컨소시엄
- Unipol : 1963년 설립, 보험, 신탁회사, 자본의 65%를 1000개 이상의 단협, 사업연합이 가지며 29%를 서독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조직인 폭스 퓨어조르게가 지니고 남은 6%를 이탈리아의 직공, 영세농민, 소매상이 분담, 이탈리아 보험업계 120개 회사중 6,7위 차지
이 회사의 좌우명 <이윤은 필요하나 우리들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주된 목적은 더 나은 서비스이다>
- Fincooper : 1969년 설립, 1977년 자본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레가 금융부문의 중추적 역할 담당

6) 레가코프의 부문 조직

- 전국생협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Cooperatives, ANCC/COOP) : 1957년 설립, 산하 사업조직 이탈리아생협연합회(Coop Italia)를 두어 경제사업을 추진
- 전국농업/식품/농촌개발협동조합 Legacoop Agroalimentare : 57년 설립, 농업회사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
- 전국주택협동조합연합회 Ancab : 1961년 설립, 약 3,000개의 협동조합, 조합원 40만명
- 전국소매협동조합연합회 Ancd : 1973년 소매유통부문에서 협동조합과 관련 자영업체들이 상호협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가장 큰 조직은 코나드협동조합(Consorzio Nazionale Conad)이며 약 4,000개의 소매상이 포함
- 전국노동자/생산협동조합연합회 Ancpl : 건설, 제조, 엔지니어, 디자인 부문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망라, 아주 작은 지역기업에서 해외수출이 많은 큰 사업체까지 다양, 법률·제도·금융 지원 역할, 유럽의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및 참가형 기업 연맹 CECOP의 창립 멤버
- 문화협동조합연합회 Andcc : 연극, 영화, 비디오 제작, 인쇄출판, 박물관 안내 및 관리운영 등
- 전국 서비스 및 관광협동조합연합회 Ancst : 1990년 설립, 교통, 화물운송, 물류, 건강과 고용 서비스, 단체급식, 개인 케터링, 위생관리, 환경보수, 시설보수관리, 의사협동조합, 친환경관광, 공예품제작 등
- 전국수산업협동조합 LegaPESCA
- 저널리스트,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연합회 MediaCoop : 2004.10월 설립, 회원 370명, 출판사, 그래픽, 인쇄 및 발행, 라디오, TV, 재택 신문편집, 영화제작, 비디오 프로덕션 포괄
- 레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LegaCoopSociali : 2005.9월 설립, 레가에 소속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조직, 회원조합 1,550개(A유형 1,110, B유형 440개)
- 후생/공제조합연합회 FIMIV : 1900년에 설립, 건강, 사회적, 문화적, 레크레이션 분야, FIMIV건강카드가 있으면 병원요양, 치과, 건강검진 등에서 할인요금을 적용받음

7) 레가코프 가치헌장(1995년)

- 조합원은 모든 종류의 상호 부조에서 근본적인 핵심 축이며, 협동조합 활동의 가장 우선적인 대표성을 지닌다.
-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사회적 공동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의 참여 과정에서 안전성과 편리를 제공하고 그 공로를 인정한다.
- 개별 조합원들의 실질적 참여가 협동조합이 가진 가장 주요한 자원이다.
- 모든 협동조합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의 활동 가치를 강화·육성하고 창의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협동조합 내 핵심 인재들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존경의 자세로 임한다.
- 개별 업무와 위치에서 모든 협동조합 일꾼들에게 정직·정의·책임감이 요구된다.
- 협동조합은 투명성, 정직성, 정당성을 스스로 개발해내어 그 가치의 수준에 따라 근본적 진가를 드러낸다.
- 협동조합은 다원적 공존을 자산으로서 인식한다.
- 협동조합은 다른 경제적·사회적 주체와 그들의 의견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고유의 독창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제안 활동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의 존재와 차별적인 형태, 이것들을 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협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개별적 관계는 반드시 다른 관계에 기초를 두거나 경제적 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업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협동 활동은 시장이라는 곳이 부의 생산, 건강과 환경에 대한 존경을 위한 곳이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 시장에서 협동의 기능은 법률에 따를 뿐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당성의 원칙도 부합한다.
- 협동 활동은 협동조합의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사업체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기존 사업체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체의 개발을 위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한다.
- 협동 활동은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내부 관계를 감시한다.
- 협동조합체는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고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적 성장과 적합한 운영 방침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체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킨다.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가 규정한 협동조합의 상호 부조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부의 생산과 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의 개념을 담고 있다.
- 협동 활동은 그것이 속해 있는 경제 체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스스로 시장에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적·도덕적·공익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한다.

바. 볼로냐 협동조합 기본현황

- 유럽연합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개 지역중 하나
- 임금은 국가평균의 2배(1인당 소득 4만유로, 약 5700만원)
- 실업률은 3.1%(이탈리아 전체 실업률 9%, 에밀리아 로마냐주 실업률 5%)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여겨짐
-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음
-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가운데 15개가 협동조합임
-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모든 생산 경제활동의 약 30% 차지
- ※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30% 차지

사. 볼로냐에 협동조합이 활발한 이유?

1) 지역성

볼로냐는 중세시대부터 군주제나 공화국의 형태가 아닌 자치형태를 띠는 도시로, 왕족이나 귀족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수직 지위체계를 싫어해 시민들은 주인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일해 왔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는 평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겨져 왔음

※ 1257년 노예를 폐지하는 법률이 생겼을 정도로 평등을 추구하는 지역

※ 1800년대 후반 가톨릭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이 컸으며 대기업이 없고 수동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려는 지역성이 강함

2) 법과 사회제도의 밀받침

○ 이탈리아 헌법 제45조 :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인정

○ 세제 혜택 : 사기업은 이윤 100%에서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윤 70% 면제, 나머지 이윤 30%에서 27.5%를 세금으로 납부,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에 이 돈을 다시 투자하면 이에 대해 면세 혜택

3) 시너지 효과

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생산·소비·금융·교육 등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아. Coop Italia 기본현황

- 소속 소비자협동조합 : 124개
- 매장 : 1,425개
- 면적 : 1,685,000m²
- 직원 : 56,500명
- 조합원 : 6,955,000명
- 총매출액 : 12,631,000,000 유로

자. Coop Italia 특징

- 1) **규모화 및 전문화** : Coop Italia는 마케팅, 상품구매를 총괄하는 coop로 유통 분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단일 조합으로는 경쟁력이 약하지만 여러 coop이 뭉쳐서 큰 기업과도 경쟁이 가능하다. 이는 철저히 역할 분담이 이뤄져서 생산, 유통, 마케팅, 기획, 법률자문, 투자, 교육 등이 분야별 전문화되어 공생과 발전을 꾀하기 때문이다.
- 2) **자생력** : 역사적으로 정치권의 부패로 인해 기대감이 상실되어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하며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음.
- 3) **신뢰성** : 이탈리아 국민의 60%가 코프의 조합원일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고, 외형상으로도 대규모 사업체에 버금가는 협동기업으로 성장했다. 싸고 품질이 좋은 물품을 인간적이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합원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음, 볼로냐에서 코프에 대한 신뢰도는 75%.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와 비슷함.
- 4) **조합원과 소통** : 친환경, 공정무역, 윤리성을 강조며 어린이노동이 안들어갔는지 확인 등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필요와 욕구를 반영함.



Coop Italia 본부



담당자와 미팅

차. 시사점

○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 방향

우리 나라는 조직이 생기면 정치색을 띠면서 감투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협동조합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자립·자활 의지가 강하다. 우리시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많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시도 협동조합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지 직접적인 예산지원(보조금 등)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 협동조합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

○ ‘협동조합’ 단위 전국행사 유치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icoop 우리밀축제가 중단됨으로써 우리 지역 농가와 계약해서 생산하던 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례임. 오히려 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8. SEKO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 기본현황

이탈리아 SEKO SPA는 이탈리아 북부의 가장 산업화되어 있는 지역인 베네토에 약 60,000㎡(18,000평)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 농기계, 환경기계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Biogas 관련 실적은 이란, 프랑스, 터키 등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가동 중, 특히 세계 최초로 Biogas산업을 시작한 독일에도 수출함. 이탈리아 국내 Biogas 관련 시장에서 70% 시장 점유율 확보, 유럽에서 약 80기의 Biogas Plant의 원천 기술적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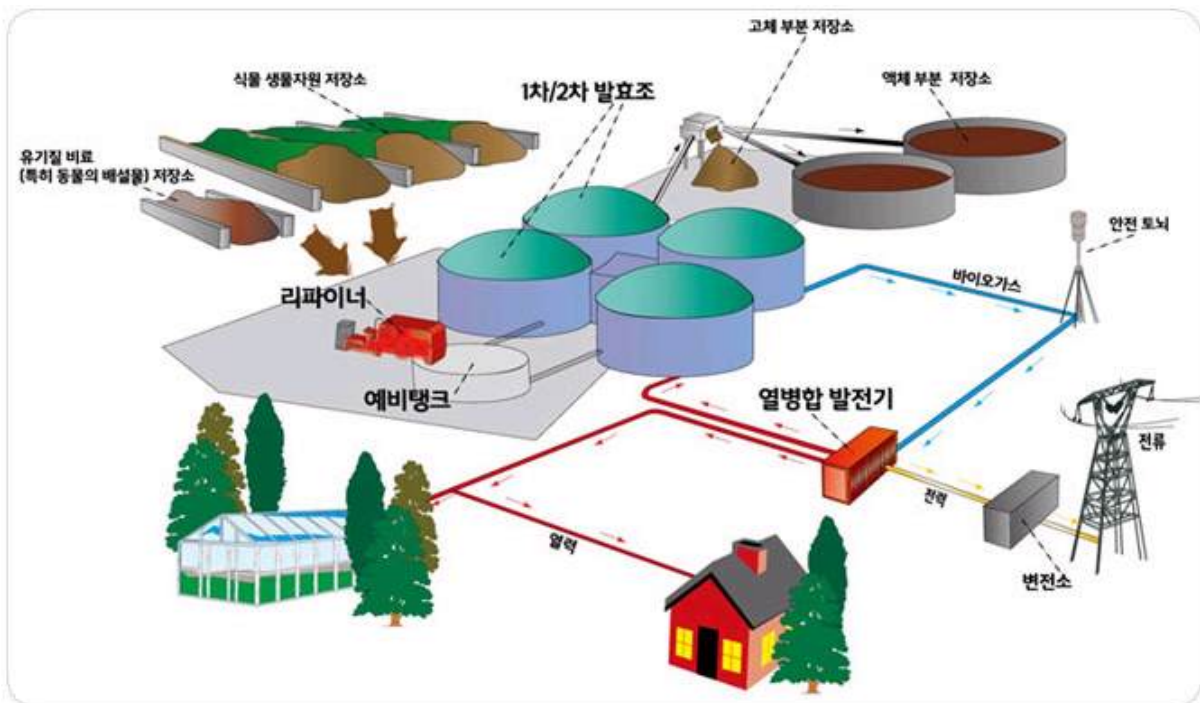
나. 바이오가스플랜트의 기능

- 1)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산물폐기물 복합처리(1일 800톤)
- 2) 바이오가스 전력생산
- 3) 부산물 고품질 퇴비, 냄새없는 액비생산
- 4) 사계절 온수, 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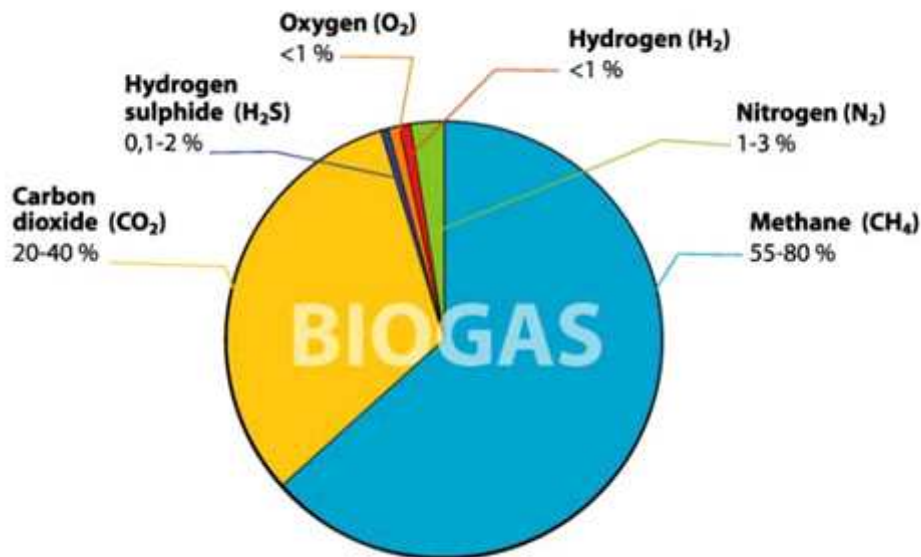
다. 기술력

- 1) 고효율 처리공법 혐기성발효 : 소의 위를 응용한 4개의 발효조
 1차 발효조 2개(85% 메탄생성)
 2차 발효조 2개(15% 메탄생성)
-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스, 전기 생산기술 : refiner 원료를 잘게 자르는 특수 기계장치 과정으로 부피감소, 소요전력과 혼합시간의 절약, 3단계 걸친 가수분해작용, 호산성미생물 발생과정, 메탄생성미생물 발생과정으로 안정적인 55~60% 메탄 발생,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시간당 1,000kwh 전기생산
- 3) 친환경 냄새없는 퇴비 액비 생산 : 소화액의 액비화과정시 악취제어, 침전방지 특허기술로 완벽하게 악취제거, 환경을 오염시키는 질산염 질소가 없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최종 발효액에서는 냄새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냄새없는 액비생산으로 판매수익 발생
- 4) 전자동 모니터링으로 운용인력 최소화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초보자도 단기간 교육후 운전가능,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중앙 감독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안전 관리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조치 가능(휴대폰으로 원격조정 제어장치)
- 5) 처리공정



라. 경제성

- 1) 전기생산 : 8,280Mwh/년 약 2360 가구 전기사용량
- 2) 폐자원(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산물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 214,817톤/년
- 3) 열에너지, 온수 공급 : 121,105,360Mcal
 - 지역난방, 펜션 열 공급
 - 시설농가(온실, 축사), 수영장, 찜질방 판매수익 가능
- 4) 고급비료생산 : 퇴비생산 25,136톤/년 액비생산 : 184,331톤/년
 - 냄새없는 액비로 골프장 연중 잔디관리
 - 맞춤형비료 생산 판매
- 5) 탄소배출권 사업 CDM



마. 기술적 특징

- Refine를 통한 발효 효율 증진 : 음식물폐기물을 사전에 잘게 자르는(refine) 과정을 통해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보유
- 습식 혐기성 발효공법 :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및 농수축산 부산물을 습식 혐기성 발효공법으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및 전기, 난방열, 유기 고체비료, 유기 액체비료를 생산하여 환경 및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최첨단의 Biogas Plant 기술을 제공

바. 한국형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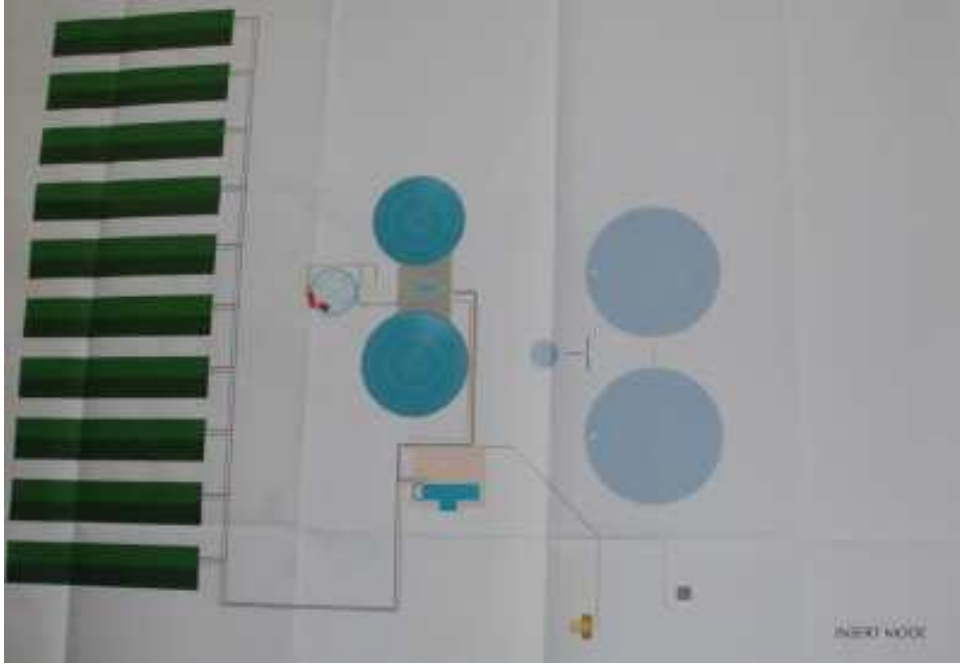
- 런던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축산분뇨,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량 육상처리를 추진해야하는 정부의 방침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완벽한 처리가 필요해짐, 기술력에 있어 EU에 비해 60%정도 기술수준에 머무는 국내 산업에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유럽형 건식바이오공법으로 인해 부진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수분 함유량이 많은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특성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Seko는 한국 실정에 맞는 습식바이오공법을 활용함. 세코 아시아의 한국형 바이오공법은 돼지분뇨 20일, 음폐수 40일이 경과되면 고체비료, 액체비료가 생산되며 이 유기성 비료는 한국의 가축분뇨처리 기준법 제10조에서 요구하는 4개월이상의 저장탱크없이 즉시 살포가능한 악취가 전혀 없는 유기성 친환경 퇴비원료로 사용됨.

사. 사업성

- 가축분뇨만 처리하여 발생한 전기매전은 수익성이 낮음 : 가축분뇨만 처리시 메탄가스 발생량이 적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임. SEKO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뿐만아니라 음식물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면 발효탱크 용량도 1/3로 줄일 수 있고 메탄가스 발생량도 많아 전기매전 수익이 증가한다고 함. (참고 : 이탈리아 420원/kW, 한국 120~170원/kW) 따라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시행시 가축분뇨만 처리하는 공법보다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도 함께 처리하는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다만, 우리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폐열활용 및 가축분뇨처리비로 보완 : 전기생산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인근에 하우스재배 단지와 연계하여 폐열을 제공하여 영농비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산물 판매수익과 가축분뇨 처리비용으로 수익을 창출.
- 처리공법은 전문가 영역이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탈리아 기술력도 독일 기술력 못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SEKO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 건립된 plant가 아직 없으므로 자사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없이 여러 펀드와 회사 자금을 이용한 plant 건설 계획을 갖고 있음.

아. 시사점

-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필요성 공감** :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방안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은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올리고 또한 부산물로 비료 생산,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재배에도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참** : SEKO는 민원발생시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에 추진한다고 함. 실제로 방문한 사업장의 경우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도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다고 하며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함. 따라서 우리시도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함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시설물의 다목적 활용** : SEKO 사업장은 가축분뇨 발효과정을 통해 발생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부산물로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해주며, 또한 폐열을 활용한 하우스재배시설을 인근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만을 위해 시설물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FTA 대응 잘사는 농촌만들기** :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하우스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해결한다면 농가소득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은 눈에 띄는 좋은 방안임. 또한 부산물로 퇴비를 공급해 준다면 이 또한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다. 혐오시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여겨짐. 혁신적이고 자생적인 농민단체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물과 기름의 관계를 서로 win-win 관계로** :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주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은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가의 자세가 중요함.



(시설도면 좌측 직사각형 녹색 부분이 폐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재배단지를 나타냄)



SEKO 현황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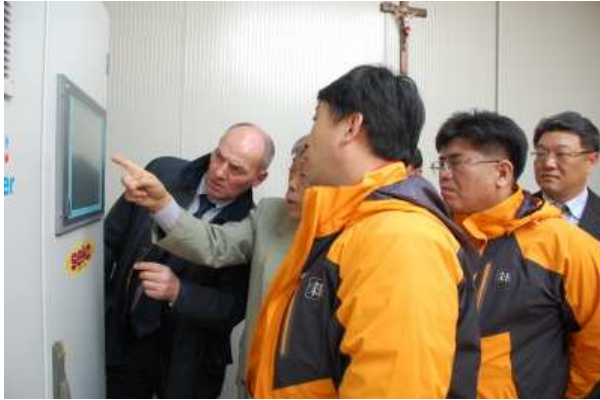
축산분뇨에너지시설 견학



생산된 퇴비 확인



발전시설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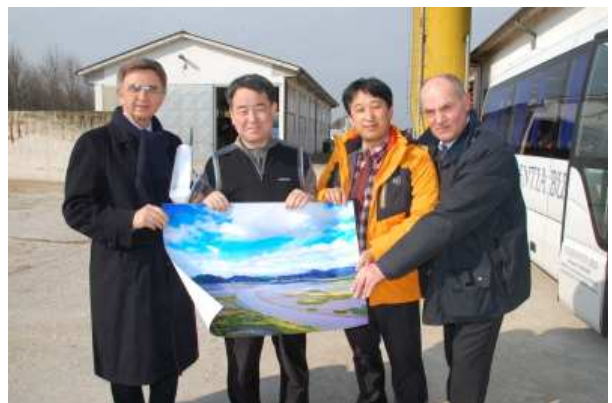
전기생산량 계기판 확인



발효시설 견학



가축분뇨에너지시설 견학



기념품 전달

9. 피렌체 전통시장(중앙시장)

가. 기본현황

- 위치 : 두오모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중앙역 사이에 위치
- 운영시간 : 10:00 ~ 19:00(상점마다 다름)
- 설계 : 건축사 “주세페 멩고니”, 모더니즘 건물

나. 매장현황

- 건물내부 : 다양한 종류 물건이 있으며 상점도 100개가 훨씬 넘는다. 1층은 육류와 신선한 어패류를 판매하고 2층은 과일과 채소를 판다.
- 건물외부 : 넓은 가축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가축 기념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 특징 : 일명 ‘도둑시장’으로도 불린다. 1874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피렌체 대표 재래 시장이다.

다. 시사점

- 관광 체험형 시장 : 중앙시장은 130년이 넘는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주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는 그 시장에서만 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토대로 관광체험형 재래시장을 컨셉으로 아랫장, 웃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보행자 중심거리 : 오스트리아 빈 케른트너 보행자전용거리처럼 피렌체 중앙시장도 차량을 통제하고 운행가능 시간이 05~10시, 18~21시로 정해져 있다. 그 외 시간은 차량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응용해서 아랫장날에는 아랫장 주변 도로(예 : 로터리에서 하나로마트까지)에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한다면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가죽상품 노상 거리



차량통제 표지판



중앙시장 건물내부 상가



가죽제품 상인

※ 이탈리아 관광객 교통시스템

- 베니스 : 진입차량 철저한 통제 관리, 환승지에서 입장료를 납부하고 선착장에서 진입하여 하차, 장기주차는 불가, 베니스가 수상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하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통제하여 거주민의 편의를 증진함.
- 피렌체 : 중심가 주요 관광지역은 오전 10시까지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량운행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면 차량통제하고, 좁은 골목길이지만 중형, 소형버스, 택시를 운행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외부 진입 승용차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임, 대형관광버스도 지정된 주차장에 잠시 하차만 가능하고 장기 주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람시간 동안 차량은 계속 이동해야함.
- 로마 :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있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태운 대형버스는 전용 주차지역에 주차하고 관광객을 하차한 다음에는 바로 이동해야함. 또한 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서 허가를 얻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진입하면 CCTV 콘트롤 시스템으로 차주와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됨. 버스 승·하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하게 되는 것 또한 단속 대상임.

10. 오르비에토 마을만들기

가. 기본현황

- 위치 : 이탈리아 테르니 현의 도시
- '슬로시티'운동의 메카
- 900년 된 성벽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도시로 마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2km가 안 된다
- 로마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
- 인구 : 21,000여명

나. 특징

- 차량통제 : 늘어나는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위협적이어서 변화가는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대신 마을 밖에 주차장을 짓고 방문객이 차를 두고 들어오게 함
- 슬로시티 슬로건 : 마을 전체가 느리게 가는 '슬로시티'란 아이디어를 낸 인물은 15년째 오르비에토 시장을 맡고 있는 스테파노 치미키씨(1988~2003년 시장 역임)
- 철저한 도시계획 : 오르비에토 상부지역(절벽위 마을)은 개발행위가 전혀 안되고 보존 구역으로 관광 자원화하고, 하부지역은 구역별로 택지를 개발해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확보

다. 시사점

- 장기적이고 철저하며 세밀한 도시계획관리 : 오르비에토 시는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기존 오래된 도시 미관을 살려 관광 자원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차량통제로 주민 편의도 증진시킴. 우리시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오래된 건축물을 살리면서 주민 편의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정책이 필요함.

※ 방문 안내 및 브리핑을 해준 시청 도시계획 담당자가 나무 한그루, 건물 한 채가 들어설 공간을 CAD를 이용해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상부 기관의 허가를 통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한 후에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임.

- 슬로시티의 조건과 좋은 마을 만들기 방안 : 대체 에너지 등 환경친화 기술 개발, 마을 광장 네온사인 없애기, 전통 수공업·조리법 장려, 문화 유산 지키기, 차량 통제 제한, 자전거 길 만들기, 나무심기, 경적 등 소음 줄이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글로벌 브랜드의 대형 체인점 거부, 패스트푸드·유전자 변형 음식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우리시 마을만들기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절벽 위 방어형 도시 오르비에또 전경



마을 위로 이동수단 리프트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상가



마을 중심가 이동수단 미니버스



마을내 주민 주차장



벤치와 볼거리가 많은 골목길



시장과 미팅



도시계획 담당자 브리핑

11. IperCoop Euroma2

가. 기본현황

- 위치 : 로마외곽에 230업체가 입주한 대형 쇼핑몰 EUROMA2 지하
- 매장면적 : 5,000m²
- 직원 : 250여명
- 주간 매장 이용자 : 5~6만명(70% 정도가 조합원)
(조합원이 아닌 누구나 매장 이용가능, 가격 차이는 있다.)
- 매장 주체 : 유니코프 티렌토 지역생협

나. 특징

- 운영방식 : 쇼핑몰의 입점형태는 임대와 취득이 있었으나 생협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시장선점 효과를 통해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매장면적을 아예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 대형매장 : ipercoop은 레가코프에 속한 이탈리아 생협연합회(ANCC) 산하의 생협들이 통일적으로 전개하는 대형매장(하이퍼마켓)으로 전국에 93점이 운영되고 있다.
- 자체브랜드 : 'COOP4'이라는 자체브랜드의 개발 및 판매

다. 시사점

- 생협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매장 컨셉을 통해 소비자에게 생협의 장점을 알리는 선두 매장의 역할을 수행
- 적은 조합비(25유로)로 조합가입이 되고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매장과도 경쟁이 가능함.
- 농업 생산자와 직접 일정기간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생산자-소비자 사이에 중도매인으로서 유통마진을 챙기기 보다는 조합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함.
-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져 산지가격은 저렴하나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4) 이탈리아 국내산이면서 친환경 유기 농업 생산물, 친환경 가공품, 공정 무역 물품에 대해 '코프(COOP)'마크를 붙인다. 공정무역 브랜드인 'soridal'와 친환경 독자브랜드 'vivi verde' 등이 있다.



매장 안내



매장 안내



딸기 포장재



딸기 유통 상자



ipercoop 브리핑



기념품 증정



매장 외부 전경



매장 입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제언

1.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 모색

- **FTA 대응 잘사는 농촌만들기** :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하우스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해결한다면 농가소득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은 눈에 띄는 좋은 방안임. 또한 부산물로 퇴비를 공급해 준다면 이 또한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다. 혐오시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여겨짐. 혁신적이고 자생적인 농민단체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참 중요** :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에 추진이 필요함. 이탈리아 방문현장은 사업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도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다고 하며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함. 따라서 우리시도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함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 기존 사업추진 방식은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의 반대를 걱정해 몰래 땅을 매수하는 등 주민들과 별개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사업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고 충분히 공개하여 주민이 동참하고 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물의 다목적 활용 홍보** : 가축분뇨 발효과정을 통해 발생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부산물로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해주며, 또한 폐열을 활용한 하우스재배시설을 인근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만을 위해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운영 필요

- 무레크 에너지자립 마을처럼 가축분뇨에너지화, 폐식용유 활용한 디젤생산,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춘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 기대효과

- 1)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 주민 참여도 중요
 -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해와 동의 필요
 - 에너지자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교육
- 2) 지역경제 활성화
 - 저렴한 값에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
 - 에너지회사 운영, 관련 수거작업에 주민참여로 일거리 창출
- 3) 환경보호 및 탄소배출감소
 - 화석연료 사용감소, 폐식용유 활용, 태양광에너지 생산
- 4) 환경보호 교육 및 대외홍보의 장으로 활용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설

-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며,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 중 “협동조합의 이해”와 관련된 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조합의 다양한 연례 행사 개최시 적극 협조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함.

○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 방향

우리 나라는 조직이 생기면 정치색을 띠면서 감투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협동조합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자립·자활 의지가 강하다. 우리시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시도 협동조합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지 직접적인 예산지원(보조금 등)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1) 독립성(자생력) :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처럼 정치권력과 자본(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자활 의지 중요
조합 설립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며 행정적으로 지원하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 2) 공공성 : 물질의 풍요보다 관계의 풍성함으로 살맛나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구
- 3) 협동정신 : 사람중심의 조합이 되어야 하고 출자금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닌 1인1표로 평등한 조직 문화와 협동정신 중요
- 4) 지속가능성 :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발전

4. 독특한 디자인의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 우리시의 경우 서민을 위한 안정된 주택 공급이 부족해 기형적으로 원룸, 투룸 형태의 주거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오스트리아 훈데르트바서하우스처럼 시영 아파트 건립이 필요함. 아파트 건립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리고 시영 임대아파트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우선대상으로 입주 기준을 세워 운영하면 우수 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전용거리 운영

- 우리시 중앙시장, 연향동부시장, 금당상가를 대상으로 물품 배달 등 차량운행 가능 시간을 08~10시, 21~24시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량을 전면 통제시켜 안전한 보행자 전용거리를 조성하면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음. 이 정책 추진으로 자연스럽게 방문객이 늘고 여기에 문화행사도 곁들여 볼거리를 제공하면 대형쇼핑몰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됨.
- 도로점용료 제도 활성화 : 케른트너 거리 1층 상가 앞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카페테리아로 활용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 우리시도 적합한 곳을 찾아 보행자 전용거리로 조성하면서 도로점용료 제도를 활성화시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잡상인이 없는 깨끗하고 정비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행자 전용거리 주변 주차장 확보 : 보행자 전용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전용거리 주변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책이 필요함.(예 : 공공·공용시설부지 또는 폐가 등을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

6. 보존과 이용의 균형

- 세계문화유산인 원부른궁전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지만 무조건으로 관람객을 통제하지 않고 궁전내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있는 정원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이곳을 찾아 운동 등 여가활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통해 잘 활용하는 예를 벤치마킹해 우리시도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하고 야외정원 등은 시민에게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7. 공공기관의 주변 공간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오스트리아 빈 시청 지하에는 3,000여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위에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로 활용된다. 또한 청사 주변 공간(광장 등)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용부지는 지하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난에 대비하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함.

8. 문화공간 건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그라츠의 경우 무어강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 지구의 계층화가 심각했지만 독특한 문화공간이 들어섬으로써 범죄율도 감소하고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시도 원도심에 들어선 문화건강센터, 청소년수련관, 두드림영상미디어센터, 문화의거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언론인간담회 및 타시·군 벤치마킹 사례

1. 언론인간담회 개최

- 일시 : 2013. 3. 22(금) 11:00
- 장소 : 소회의실
- 대상 : 순천시 언론인
- 보고 : 문규준 위원장, 허유인 간사
- 내용 : 해외연수 목적, 기간, 출장비, 참석자에 대한 브리핑



해외연수 개요 설명(문규준 위원장)



해외연수 세부일정 설명(허유인 간사)

2. 정읍 (주)립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장 비교견학

가. 방문개요

- 기 간 : 3. 18.(월) 10:00~17:00
 - ※ 청사앞 10:00 출발
- 방문지 : 정읍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장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32)
- 참 석 : 4명(의원 2, 직원 2)
 - ※ 문규준 의원, 허유인 의원, 이강선 전문위원, 전동준 주무관
- 목 적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장 현장 견학

나. 정읍 (주)립코 사업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0. 2 ~ 2012. 12월
- 위 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81번지
- 사 업 량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BGP, Bio Gas Plant) 1식
 - 처리용량 : 100톤/일(가축분뇨 70톤, 음폐수 30톤/(TYPE II))
 - 전기생산 : 7,500Kw/일
- 사 업 비 : 70억원(국비 21, 도비 6.3, 시비 14.7, 융자 14, 자담 14)
(30%) (9%) (21%) (20%) (20%)
- 사업주체 :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
 - 공법업체 : (주)립코(대표이사 박용한)
- 추진공정 : 100%(시험가동 중)
 - 사업착공일 : 2011. 07. 26.
 - 시설물 준공일 : 2012. 12. 12.

다. 현지주민의견 청취

- 사업추진시 인근 마을 1개소당 2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반대 여론을 무마시켰다고 함.
- (주)립코 시설에서는 악취 등 냄새는 나지 않았고 오히려 경축자원화 시설에서 강한 악취가 멀리까지 전달되었음.

라. 시설 운영자 의견

- 현재 발효탱크는 80% 적재되어 있는데 전기발생은 100%가 이뤄지고 있어 시설운영에 만족하고 있음. 법적범위(30%)내에서 음폐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효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가축분뇨만 처리하면 효율은 떨어질 것으로 여겨짐.

마. 현장견학 사진



외부시설 견학



시설운영자와 질의답변



내부시설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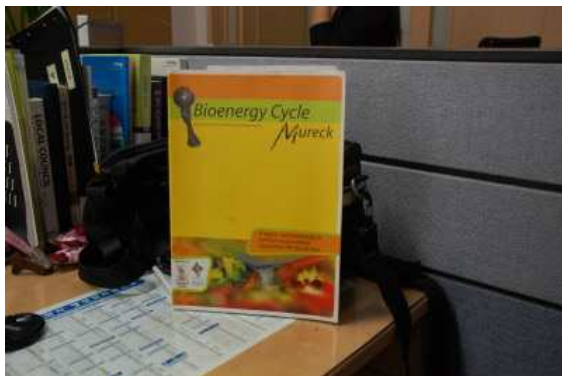
시설물 입구

바.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 (주)립코와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립코 비교

구 분	정읍시 소재 (주)립코	순천시 소재 (주)립코
사업내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BGP, Bio Gas Plant) 1식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BGP, Bio Gas Plant) 1식
사업규모 (처리용량)	100톤/일(가축분뇨 70톤, 음폐수 30톤)	86톤/일(가축분뇨 100%)
공법	좌동	L.W.BGP 공법 (독일 웰텍사 기술제휴)
전기생산량	7,500Kw/일	1,779~5,957(잔량매전) 2,965~7,143(전량매전)
위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81번지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2-7외 4필지
사업비	70억원(국비 21, 도비 6.3, 시비 14.7, 융자 14, 자담 14)	60억원(국비18, 도비6, 시비9, 융자12, 자담15)
사업자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 공법업체 : (주)립코(대표이사 박용한)	(주)립코(대표이사 박용한)
착공/준공	착공 : 2011. 07. 26. 준공 : 2012. 12. 12.	

참고자료

1. 협동조합도시 불로냐를 가다 (김태열 외, 그물코)
2. 무레크 에너지자립마을 연례 사업보고서
3. Coop Italia 연례 사업보고서
4. SEKO agripower 안내책자
5. SEKO asia 홈페이지 (www.sekoasia.com)
6. 방문지 기본현황 (여행사 제공, wikipedia)



무레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보고서



Coop Italia 사업보고서



SEKO 안내책자



SEKO 안내물